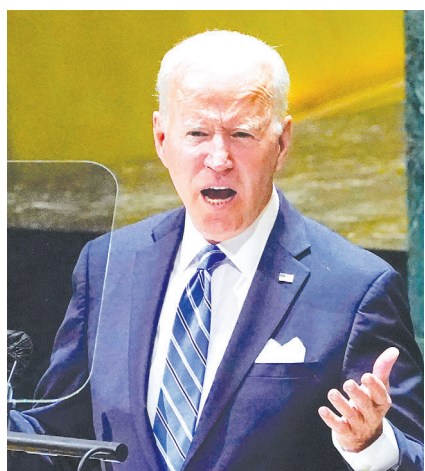


대놓고 언급만 안했을뿐... 할 말 다 한 바이든·시진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해 영국·호주와 발족한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공동성명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우방을 옹호하고, 약자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역시 구체적으로 상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이 침략당하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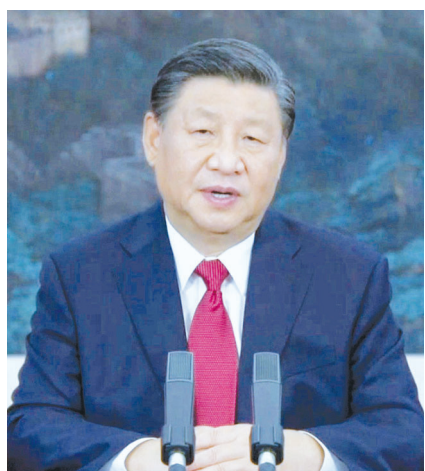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을 공격했다.

그는 "평화롭고 발전된 세계는 여러 형태의 문명을 포용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에 귀속된 특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반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겨냥해 "외부의 군사적 개입과 함께 이른바 민주적 변혁은 부정적 결과만 불러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민주주의, 특정국가 권한 아냐” “중국은 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

사회를 향한 지원 경쟁도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발표보다 배로 늘린 1천억 달러, 전 세계적인 기아 퇴치를 위해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도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0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약자 지배하려는 강대국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시 주석 입에서도 '미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염두에 둔 연설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초점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

중국, 중추절 8천만명 여행

중국에서 중추절(추석) 연휴 사흘간(19-21일) 8,816만명(연인원)이 국내 여행에 나섰다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87.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중국중앙방송(CCTV)은 22일 보도했다.

여행객이 2년 전보다 13% 가까이 감소한 것은 7월 말 이후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추절 연휴 국내 여행 수입은 371억5,000만위안(약 638,000억



21일 상하이 와이탄을 찾은 중국 여행객들. /연합뉴스

원)으로 2년 전의 78.6% 수준이다. 다 엄격한 격리 정책이 유지돼 해외여행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연합뉴스

호주 코로나 제한조치에 수천명 폭력 시위

건설현장 폐쇄·접종 의무 반대 등·병 던지고 행인 향해 공격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수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설현장 폐쇄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도로 점거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22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전날 건설 노동자 등 2,000여 명이 멜버른 시내에서 빅토리아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건 명령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빅토리아주 정부를 향해 건설현장을 폐쇄하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보건 명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멜버른에서 코로나19 보건 명령에 항의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건설 노동자들. /EPA-연합뉴스

대부분 얼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는 멜버른 서쪽의 웨스트 게이트 다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는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방송 기자에게 강동을 던지고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현지 방송국 세븐 뉴스의 폴 다우슬리 기사는 "시위대가 목둘레를 잡은 채 오줌을 뿌리고 음료 강동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로 여러 도로가 봉쇄되면서 멜버른 도심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초래됐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40여명이 체포됐다. 시위대에는 건설 노동자·기능공·노동조합원뿐 아니라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과격 운동 세력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력과 방해 행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단 한명도 줄일 수 없으며 오히려 바이러스의 전파만 도울 뿐"이라고 이날의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매일 그리고 오늘도 헌신적으로 싸운 용감한 빅토리아주 경찰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광역 멜버른 등을 대상으로 필수 목적 외 외출금지를 포함한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장치 파손 또 확인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저거설비(ALPS·알프스)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설비인 ALPS 배기 필터 5개소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개소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

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LPS의 오염수 정화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29개소의 조사를 마친 도쿄전력은 앞으로 22개 부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9일에도 ALPS의 침전물 탱크 필터에서 파손 부위가 확인됐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원전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전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ALPS는 트리튬(삼중수소)을 제거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ALPS로 여과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처리수)를 이르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바닷물로 희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회의실

객실

에식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